

해외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해외여행 선택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Choice of Overseas Travel on Fear of risk in Overseas

신재현¹ · 김상운^{2*}Jaehun Shin¹, Sangwoon Kim^{2*}¹Ph.D., Division of Audit, Gyeonggi Province, Uijungbusi, Republic of Korea²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Dae-gu Catholic University, Kyoungsan,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Sangwoon Kim, ksw48@naver.com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and analyzed using statistical techniques to examine the impact of fear of risk committed by risk committed overseas on people who are about to travel abroad. **Method:** In the event of a risk, fear of a risk occurs, and fear of a risk adversely affects people's daily lives, and in the event of a decline in daily life, affecting the economy and social activities of the area, a small risk often has a huge impact on society. In particular, the fear of risk committed abroad has an impact on overseas activities as overseas travel has been activated in time for the global era. **Result and Conclusion:** Therefore,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fear of crimes committed oversea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choice of overseas travel.

Keywords: Overseas Travel, Fear of Risk, Crime, Terror, Natural Disaster, Accident, Hungary Tourist Boat Accident

요약

연구목적: 해외에서 발생한 각종 위험으로 인한 두려움이 해외여행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연구방법:** 해외여행 직전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범위를 비롯하여 테러, 자연재해, 사고 등 각종 위험에 직면할 경우 이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두려움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일상생활이 위축시켜 지역에 큰 악영향을 끼치곤 한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맞춰 해외여행이 활성화됨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한 위험은 해외여행 선택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연구결과 및 결론:** 이 연구를 통하여 해외여행 직전 대기 중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자료로 분석한 결과, 자연재해 · 범죄 · 사고로 인한 두려움은 해외여행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테러에 대한 두려움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요인 중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순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해외여행, 위험에 대한 두려움, 범죄, 테러, 자연재해, 사고,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Received | 29 January, 2019

Revised | 30 January, 2019

Accepted | 17 June, 2019

 OPEN ACCES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서론

전 세계를 막론하고 인간이 생활하는 지역 어디에서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고는 범죄 및 테러와 같은 인위적이고 고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고를 비롯하여 자연재해 · 교통사고 ·

돌발사고와 같이 고의성은 없으나,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돌발적인 사건·사고는 사람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한다. 특히, 사람들이 집중되는 곳에 발생한 사고는 주변의 시민들에게 신체적·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킬 뿐 만 아니라, 이런 사고를 간접적으로 접한 이에게도 두려움을 야기시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 위협으로 발생한 두려움은 개인에게 영향을 끼쳤지만, 결국 그 개인이 생활하는 사회·경제·정치·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 결과, 각종 사고 및 위협에 대한 두려움은 지역을 공동화(become hollow)시켜 또 다른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으로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되는 메커니즘(Mechanism)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두려움에 의한 악순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위협 혹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자는 물론 간접적인 피해자 등 위협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모든 이에게 두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두려움은 시민들의 삶을 위축시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감소시킴으로서, 사회적·물리적 환경을 공동화시켜 위협 및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으로 악화시키는 메커니즘(Mechanism)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은 사회 환경을 악화시켜 또 위협을 야기하는 환경으로 악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증명하고 있다. 김상운과 신재현의 연구(Kim et al., 2012)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리적 불안과 공포는 물론, 사회적 불신의 초래와 그로 인한 행동유형의 변경과 그에 따른 사회적 경비와 방법장비나 시설의 구입과 설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어 그 피해의 범위와 정도가 직접적 피해에 비해 오히려 더 심각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다(Kim et al., 2012: 36). 또한, 테러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Aly와 Green의 연구(2010)에서는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높일수록 첫째, 신체적 해에 대한 두려움(Fear of Physical harm), 둘째, 정치적 두려움(Political Fear), 셋째, 시민적 자유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Fear of losing civil liberties), 넷째, 불안정한 감정(Feeling Insecure)이 발생한다고 하였다(Seo, 2014: 23).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박정숙의 연구(Park, 2016)에서 역시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두려움이 사회활동 및 각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Park, 2016: 138).

따라서, 두려움이 증가할수록 일상생활이 위축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처럼 보여진다. 범죄를 비롯한 테러·자연재해·사고 등과 같은 일상의 삶을 위협하는 두려움은 인간의 모든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되며, 삶의 활력소를 얻기 위하여 선택한 여가생활에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사회의 구성원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궁극적으로 도시 전반의 모든 시스템을 붕괴시키게 된다.

실제로 최근에 발생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건과 같이 해외에서 발생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하여 동유럽 여행객이 감소하였고, 유람선 및 각종 해상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각종 사회적 비용이 소비되는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여행 선택 시 시민들이 사고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해외여행 선택에 안전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테러·자연재해 등과 같은 사고로 인한 두려움이 해외여행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두려움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를 파악함과 동시에 해외여행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인천·김포·김해·대구 등 국제공항에서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얻게 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SPSS 통계패키지 18.0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과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analysis)으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두려움에 대한 의의

두려움의 정의

사전적 의미에서 두려움이란 ‘위험이나 위협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을 의미 한다(Park, 2017: 29). 이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일종의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인간의 반응으로 볼 수 있다(Park, 2017: 29). 다시 말해, 두려움이란 인간이 느끼는 감정으로서 희로애락과 같은 인간의 감정 중 부정적인 형태의 정서적인 반응으로서 충격적인 사건이나 부정적인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발생할 경우 인간의 활동을 약화시켜 경제적·사회적 환경까지도 약화시키는 등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은 사소한 수준의 작은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두려움의 영향

두려움은 위협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반응으로서 두려움이 지속될 경우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어 위험이 존재할 만한 환경을 멀리하게 된다. 위험한 환경을 피하게 됨으로써, 위험한 환경과 안전한 환경으로 분리되어 위험한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자연재해·범죄·사고·테러 등 위협이 발생할 경우, 일반시민들에게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하고, 이런 두려움은 시민들의 사회활동을 위축시킨다. 사회활동의 위축은 각종 사회고 경제적인 악영향을 받게 된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할 경우 활동반경이 줄어들어 따라 사회생활이 위축되고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보안장치를 설치함에 따라 경제적 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등 사회적·경제적인 영향이 크다. 특히, 늦은 시간대 외출을 자제하게 됨에 따라 지역 내 술집·식당 등을 비롯한 야간시간 대 활동이 줄어들게 된다. 시민들의 활동시간이 줄어들어 따라 사회·경제적인 활동이 줄어들게 되고, 이 영향으로 도심지 이탈·주거지 슬럼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또 다른 범죄환경이 형성되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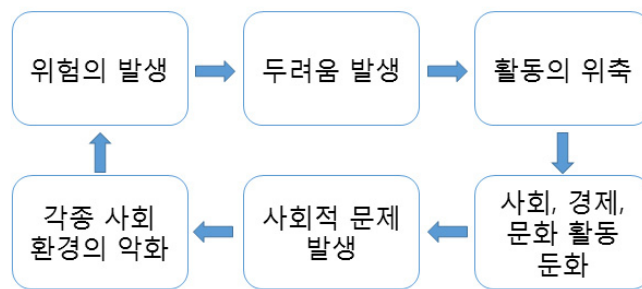


Fig. 1. mechanism of fear of risk

일반적으로 불안감은 삶의 질과 수준을 낮추고 일상활동에 제약을 초래한다. 나아가 시민들은 값비싼 예방 조치들을 취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낙후지역으로부터 회피하게 된다. 이는 시민들의 사회에 대한 신뢰와 대인관계, 지역사회 사회통제 능력에 대한 믿음의 약화를 야기한다(Choi et al., 2015: 176).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방법 및 모형의 설정

이 연구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범죄·테러·재난 등)로 인한 두려움이 해외여행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서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가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사고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두려움으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를 해외여행 선택으로 설정하였다(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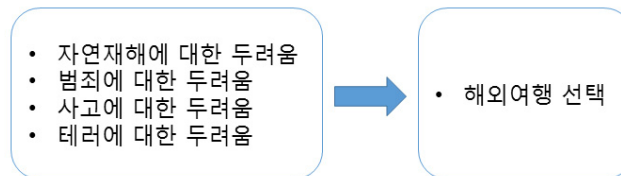


Fig. 2. research model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의 국제공항에서 해외여행 직전의 대기 중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독립변수인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종속변수인 해외여행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각 사고유형이 해외여행 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연구가설의 설정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연구모형에 따라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위험으로 인한 두려움이 해외여행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가설 2. 위험으로 인한 두려움은 각 위험별로 해외여행 선택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사고 혹은 위험(자연재해, 범죄, 테러, 사고 등)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를 해외여행 선택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사고 혹은 위험에 의한 두려움은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Fear of natural disaster)”,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 “테러에 대한 두려움(Fear of Terror)”, “사고에 대한 두려움(Fear of accident)”으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는 “해외여행 선택”으로 설정하였다.

다수의 경험적 연구에서는 두려움의 조작적 정의를 대체로 자신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의 추정이나 범죄에 대한, 또는 안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의 추정으로 개념화하였다(Sung et al., 2007: 26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사고 혹은 위험의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인한 두려움이라고 보고 자연재해·범죄·테러·사고에 대하여 5점 척도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측정하였으며, 해외여행 선택 또한 “사고나 위험에 따른 해외여행 선택”이라는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김포·김해·대구 등 전국 국제공항에서 해외여행 출국 전 대기 중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설문 대상자를 제외한 856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character of survey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436	50.9	체류 기간	5일 이하	432	50.5
	여	420	49.1		6-10일	216	25.3
연령	20대	261	30.5	그 이상	11-15일	149	17.4
	30대	243	28.4		16일 이상	20	2.3
	40대	165	19.3		모름	37	4.3
	50대	135	15.8		사무직	1	0.1
	60대 이상	52	6.1			354	41.5
년 해외 여행 횟수	1~2회	756	88.4	직업	생산직	15	1.8
	3~5회	91	10.6		전문직	80	9.4
	5~10회	6	0.7		판매종사	21	2.5
	10회 이상	3	0.3		학생	201	23.6
최근 여행 국가	동북아시아	324	72.3	주부	60	7.0	
	동남아시아	72	16.1	농림축수산 및 어업 종사자	42	4.9	
	중동·중앙아시아	3	0.7	서비스직	47	5.5	
	유럽	33	7.4	은퇴/무직	26	3.1	
	아메리카	11	2.5	기타	6	0.7	
여행 형태	아프리카	1	0.2	거 주 지	서울	165	19.3
	기타	4	0.9		인천	52	6.1
	가족친구와 하는 자유여행	281	33.0		대전	127	14.8
	가족친구와 하는 개별여행	106	12.4		대구	121	14.1
	혼자하는 자유여행	75	8.8		부산	37	4.3
	혼자하는 개별여행	23	2.7		울산	27	3.2
	학교·직장 단체여행	34	4.0		광주	52	6.1
	여행사 전체 패키지 여행	258	30.3		경기	84	9.8
	출장 등 비즈니스 여행	60	7.0		강원	36	4.2
	의료관광	1	0.1		충북·충남	31	3.6
	선교여행	2	0.2		전북·전남	77	9.0
	기타	12	1.4		경북·경남	45	5.3
	소계	856	100.0		제주	2	0.2
				소계	856	100.0	

가설의 분석

가설 1의 분석

가설 1. 사고로 인한 두려움이 해외여행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Table 2.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812	.138		13.161	.000
자연재해	-.124	.032	-.144	-3.849	.000*
범죄	-.113	.037	-.117	-3.061	.002*
사고	-.192	.036	-.194	-5.266	.000*
테러	-.031	.032	-.038	-.978	.328
R ² =.056, F=13.626					

* .p < 0.05 ** .p < 0.01

가설 1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사고에 대한 두려움 · 테러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외여행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자연재해로 인한 두려움, 범죄에 의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해외여행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로 인한 두려움은 해외여행 선택에 부(-)적으로 유의미(p=.000)하게 나타나 자연재해로 인한 두려움이 높을 경우 해외여행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로 인한 두려움 또한 해외여행 선택에 부(-)적으로 유의미(p=.002)하게 나타났다. 또한 사고로 인한 두려움이 해외여행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p=.000)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테러에 대한 두려움은 해외여행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주로 대형 사건 · 사고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사건 · 사고에 대한 정보가 전달됨에 따라 시민들이 느끼는 사고 및 위협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크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자연재해 · 범죄 · 사고에 의한 두려움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의 두려움이기 때문에 해외여행 선택 시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반면, 테러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없는 탓에 직 ·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어 상대적으로 두려움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가설 2의 분석

가설 2.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은 각 위협별로 해외여행 선택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Table 3. result of hierarchical analysis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수정된 R ²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812	.138		13.161	.000	
자연재해	-.124	.032	-.144	-3.849	.000*	.019
범죄	-.113	.037	-.117	-3.061	.002*	.027
사고	-.192	.036	-.194	-5.266	.000*	.056
테러	-.031	.032	-.038	-.978	.328	.056
R ² =.056, F=13.626						

* .p < 0.05 ** .p < 0.01

가설 2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사고에 대한 두려움($p=.000$, $R^2=.056$)”이 해외여행 선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p=.000$, $R^2=.019$)”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에 대한 두려움($p=.002$, $R^2=.027$)”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각기 사고와 위험을 접하는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우선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해외여행 선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로 대형 사건·사고 중심으로 전달됨에 따라 시민들이 느끼는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나타나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며,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동일본 대지진·유럽의 홍수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접하지 못한 대규모 자연재해가 소개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크게 해외여행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테러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여행객의 대부분이 미국·일본·중국·유럽과 같이 비교적 테러 안전지역에 여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9년 5월 30일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건과 같은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고에 의한 두려움”이 해외여행 선택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사고는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

이 연구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 혹은 위험으로 인한 두려움이 실제 해외여행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서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해당 국가의 사건·사고가 해외여행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해외여행 직전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로부터 얻은 자료를 다중회귀 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연재해로 인한 두려움·범죄로 인한 두려움·사고로 인한 두려움이 해외여행 선택에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주로 대형 사건·사고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사건·사고에 대한 정보가 전달됨에 따라 시민들이 느끼는 사고 및 위험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크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자연재해·범죄·사고에 의한 두려움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의 두려움이기 때문에 해외여행 선택 시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각 두려움별 해외여행 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해외여행 선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주로 대형 사건·사고 중심으로 전달됨에 따라 시민들이 느끼는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나타나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며,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동일본 대지진·유럽의 홍수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접하지 못한 대규모 자연재해가 소개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크게 해외여행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선택 시 자연재해, 범죄, 사고 등이 안전한 해외여행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각 요인별로 미치는 영향력이 달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사고 및 위험에 대한 성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여행업체

의 해외여행 패키지 판매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활용도가 높은 연구이다. 다만 해외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 및 개선 계획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References

- [1] Aly, A., Green, L. (2010). "Fear, Anxiety and the state of Terror." *Studies in Conflict & Terrorism*, 33(3), pp. 268-281.
- [2] Choi, J.Y., Lim, H.N., Lee, Y.H. (2015). "The Influence of the Media on Fear of Crime and Moderation Effect of Sex." *The Journal of Police Science*, Vol. 15, No. 3, pp. 175-204.
- [3] Kim, S.W., Shin, J.H. (2012). "Study on the effect of fear of crime on the selection of private security." *Korean Security Journal*, Vol. 32, pp. 33-63.
- [4] Lee, J. Y. (2011). "A Study on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Victimization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on Fear of Crime."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Vol. 7, No. 3, pp. 231-250.
- [5] Park, J.S. (2016). *The Impact of Risk Perception of Disaster on Travel Behaviors*. Ph.D.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Korea.
- [6] Park, J.Y. (2017). "Influence of Social Safety Network on Fear of Crime."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Vol. 13, No. 4, pp. 25-46.
- [7] Seo, H, W. (2014).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Fear of Terrorism*. M. A.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Korea.
- [8] Sung, Y.E., Yoo, Y.J. (2007). "Analysis on the Relations of Citizen's Personal Character and Fear of Crime." *Korean Security Journal*, Vol. 14, pp. 261-283.